

# ‘Sunday’



“나의 계절이 왔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현지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취골을 터뜨린 뒤 팀 동료인 무사 시소코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레스터시티전 1골 1도움 ... 최근 4경기 3골 폭발 A매치 건너 뛴 이후 휴식 ‘효과’ ... 특유의 몰아치기 시동

손흥민(26·토트넘)이 ‘몰아치기’를 시작하며 지난해 이어 차가운 12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손흥민은 9일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추가시간 결승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슛을 골대에 그대로 꽂았다. 시즌 5호(리그 3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13분 텔리 알리의 추가 골을 어시스트하며 2-0 완승을 주도했다. 6일 사우샘프턴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 행진이다. 이번 시즌 개막을 전후로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A매치까지 쉴 새 없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 난에 시달렸던 손흥민은 11월 A매치 휴식기의 충분한 휴식을 계기로 완벽히 살아났다. 지난달 25일 첼시와의 리그 13라운드에서 기

리던 이번 시즌 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15라운드와 레스터시티와의 16라운드 경기에서 연속 골로 기세를 이어갔다. 최근 4경기에서 3골이다. 첼시전에선 토트넘에서의 50번째 골, 사우샘프턴전에선 유럽 무대 통산 100골이라는 뜻깊은 기록도 남기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첼시, 사우샘프턴전에선 추가 골을 터뜨렸으나 이번 레스터시티전에선 토트넘의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날 토트넘은 공격의 핵심인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선발에서 제외했는데, 전반엔 공

격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한 방이 모든 걸 바꿔놨다. 골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세르주 오리에의 패스를 받아 중앙 쪽으로 들어온 손흥민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감아 차기로 골문을 열었다.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가장 손흥민다운 골이 나왔다. 손흥민의 골 덕분에 토트넘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후반엔 손흥민의 패스와 알리의 마무리가 더해지면서 추가 골이 터지며 토트넘은 리그 연속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은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낸 지난해 12월을 연상시킨다. 지난해 손흥민은 12월 초 왓퍼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골을 폭발한 바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헤딩골까지 폭발하며 12월 7경기에서 5골을 기록해 상승세를 탔다. 토트넘이 12일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16일 번외와의 리그 경기, 20일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 등 백백한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손흥민의 활약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연합뉴스

## 곽정철, 코치·가장으로 ‘제2 야구인생’

### KIA타이거즈 ‘V10’ 우승 주역 어깨·팔꿈치 등 부상 극복 못해 2군 투수 코치 새출발...어제 결혼

아쉬움의 시간을 뒤로하고 KIA 타이거즈 곽정철(사진)이 ‘제2의 인생’을 위한 길에 나섰다. ‘돌직구’의 곽정철은 올 시즌이 끝난 뒤 선수라는 이름을 내려놓았다. 목직한 직구로 2009년 우승의 주역으로도 활약했지만 끝내 부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깨, 팔꿈치, 양쪽 무릎 등의 부상으로 2011시즌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그는 지난 2016년 4월 2일 마산 원정에서 1792일 만의 세이브로 부활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혈행장애가 곽정철을 막았다. 성실하게 복귀를 준비했지만 마운드로 돌아오지 못한 그는 선수로서의 도전을 멈췄다. 곽정철의 야구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곽정철은 코

치로 야구 인생 2막을 열었다. 그의 성실함과 산전수전을 겪으며 쌓은 경험 등을 발판 삼아 지도자로 변신하게 됐다. KIA 2군 투수 코치로 새 출발을 한 그는 9일 또 다른 삶도 열었다. 곽정철은 이날 ‘새신랑’으로 사람들 앞에서 행진했다. KIA 선수배들은 물론 팀을 떠난 이들과 대거 식장을 찾아 ‘곽정철 코치’의 새 출발에 박수를 보냈다. ‘곽시인’으로 통하는 그의 ‘연애 스토리’도 낭만적이다. 곽 코치는 “카페에서 우연히 친구들과 있는 와이프를 봤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까 망설이다가 카페를 나갔다. 한 시간 정도 밖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카페를 갔다. 그래서 자리에 있으면 인연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있었다. 종이와 펜을 빌려서 만나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웃었다. 세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지만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재활과 부상 재발 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하게 옆에서 응원을 보내주던 사람과 곽 코치는 백년

약을 맺었다. 결혼에 골인한 그는 코치로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곽 코치가 그리는 모습은 ‘빛나는 주연을 위한 조연, 공부하는 코치’다. 곽 코치는 지난 10월 선수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제자가 된 후배들에게 큰절을 올렸다.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신선한 장면이었다. 곽 코치는 “나와 인연을 맺은 선수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빛나는 조연이 되겠다. 끼여 선수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코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절을 했다(웃음)”며 “그 순간이 정말 고마웠다. 내가 코치로 제안을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도 우리 선수들이 있어서 됐다.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그는 훈련 시작에 앞서 선수들의 얼굴을 먼저 살펴본다. 가족·연애·미래 등 고민 많은 젊은 선수들을 무조건 물어볼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곽 코치는 “야구를 크게 즐겼던 선수는 아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시간이 너희들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조연이라는 말을 했다.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다. 선수들이 나서서 결과를 바꾸고, 그걸로 인정받는 코치가 되겠다.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 女 월드컵 16강 ‘험난’

### 내년 6월 8일 프랑스와 개막전 나이지리아·노르웨이와 A조

2회 연속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윤덕여호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프랑스,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격돌한다. FIFA 랭킹 14위인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라 센 뭉지칼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조 추첨에서 프랑스(3위), 노르웨이(13위), 나이지리아(39위)와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개최국 프랑스와 A조에 속하면서 한국 시간으로 내년 6월 8일 오전 5시 개최국 프랑스와 개막전을 치르는 주인공이 됐다. 윤덕여호는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역대 첫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프랑스를 상대로 8강 진출을 노렸지만 0-3으로 패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어 4년 만에 ‘실욕전’을 노리게 됐다. 한국은 내년 6월 12일 오후 11시 A조 나이지리아와 2차전을 펼친 뒤 내년 6월 18일 오전 5시 노르웨이와 격돌한다. /연합뉴스